

English Worship Service

11:15 am @ Westminster Hall

Prelude	Pianist
Call to Worship	Pastor
Praise & Worship	Praise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Doxology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Jang Kyung Won
Offering	Congregation
Offering Hymn	Congregation
Offering Prayer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tthew 26:36-46
Anthem	Jerusalem Choir
Sermon	“Suffering of Christ “
Hymn	549
Benediction	Pastor
Lord's Prayer Song	Congregation

“Suffering of Christ”

Matthew 26:36–46

Today, we behold Jesus' own contemplation of his impending death on the cross in the Garden of Gethsamene. Here, Jesus openly articulates his agony to his disciples: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v. 38). He wrestles in prayer, as he repeatedly pleads with the Father: "My Father, if it is possible, may this cup be taken from me.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v. 39; cf. vv. 41, 44). According to Luke's version, Jesus' anguish was so intense that "his sweat was like drops of blood falling to the ground" (Lk. 22:43). In his contemplation of the cross, there was so much more than physical torture that he was concerned with. His agony was deeply psychological and profoundly spiritual, as he contemplated as to how he must personally bear the sins of all humanity and experience the abandonment of the Father. We could only speculate as what Jesus must have gone through, but the anguish must have been so unbearable that he would plead to the Father for such a relief. No wonder, Jesus felt compelled to pray three times in order to deal with his tendency to resist the will of the Father. Here, Jesus teaches us, even in the midst of his own suffering, that prayer is not primarily a way to force God to change his mind. Rather, prayer is a way by which we are transformed in our will so that we may conform to God's will: "Father, may your will be done!"

Announcements

- We warmly welcome all newcomers to our worship service.
- We invite you to join us for fellowship at Rm #104 after the service.
- Next Sunday (Resurrection), we join the Korean congregation for worship/communion in the main sanctuary. After worship, we invite you to join us for a potluck lunch at Rm #104
- Our Sunday study groups are as follows: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Ⅱ, Ⅲ, Ⅳ 층
	Ⅱ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Ⅱ, Ⅲ 층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Ⅱ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학교 예배 및 안내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1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에바다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유 년 부		오전 9시	701 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초 등 부		오전 9시	601 호	장 년 부		오전 10시	본 당
유초등부 연합 2부예배		오전 11시20분	701 호	장 년 부(오후반)		오후 3시30분	702 호
어린이 찬양예배(주일)		오후 5시	701 호	소 망 부		오전 10시	603 호
어린이 수요예배		오후 7시	603 호	소요리문답부		오전 10시20분	801 호
토요꿈나무영아성품스쿨	학기중 토 9:30~12:30	701 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중 등 부		오전 9시	501 호	새가족부	원입반	오전 10시20분	602 호
고 등 부		오전 9시	101 호		전입반	오후 12시40분	
청년 1부		오후 1시30분	101 호	세례교육부	1부	오전 10시20분	607 호
청년 2부		오후 1시30분	1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신혼자정공동체		오후 3시20분	102 호	직분자양성부		오후 12시40분	606 호
				새가족환영부		오후 12시40분	802 호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헌상은 서명철 장석남 황 광 유문건 박영준 조원영 서준권 전도담당전도사 배경애 교육목사 임규현 김안성 노정호 천세종

교육전도사 최민혁 구본혜 장재원 양세라 정대은 Gaichuang Panmei, Vung Zam Cing 협동목사 김철홍 원종천 감다니엘

신 교 사 강아주(한글) 권요철(조계사), 김보세(기안대사), 전광태(서사), 이은주(강계정(가치호스탈) 스브로토리), 조남태, 박진영(명굴리사), 이재출(박정진 전조진(황보사), 조범연(강계정, 우상식(김경옥사), 정성진(충원명(광우사), 서경중(이정일(노대사), 손신일(민배대) 이재출(박정진(대사), 김용진(황보명(광우사), 김진호(서양정(대사), 김진사(현해(충원명(광우사), 송남가(충원명(광우사), 허창배(명굴리사), 강희사(대동명(대사), 김하영 오정현(대사) 김대식, 윤용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갑수(순교), 김용일(백순대(대사)노동자, 이선희(명원정) 오 카, 마이, 란, 사무라, 레이, 난, 찐, 대사, 사유, 카툰, 할, 라비, 뱀, 비에, 마웅, 차, 짝, 마귀(미안) 필리몬, 프르산트, 수제사, 수바스, 알로루, 비비(비비) 보드스, 리로, 수라(명굴리사)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읍

Lee Jong-Yun, Ph. D., D.D., D.

답임목시

Senior Pastor

박 노 촌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꿈을 꾸는 사람”

("A Man of Vision")

■ 창 37:1-11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것입니다. 왜하면 요셉은 자신에게 다가 온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했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 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위로를 얻고, “다시 한 번 시작해 보자” 라고 하는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꿈의 사람 요셉을 함께 살펴보면 우리도 함께 꿈꾸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입니다. 꿈은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로, 힘이고, 지혜이며, 우리를 사명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꿈이 없으면 그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꿈이 있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 꿈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도 바로 꿈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됩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자가 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비전을 품게 됩니다. 꿈이란 무엇입니까? “꿈이란 우리에게 끊임없는 열정을 부여하는 미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꿈은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들에게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선물합니다. 처음에는 뜨겁지만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는 내력을 선물합니다.

2. 꿈을 꾸기에 너무 열악한 환경은 없습니다.

요셉의 가정환경은 대단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한 아버지 어머니가 네 명입니다. 여기에 생모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요셉을 많이 사랑해 주었지만, 그 사실로 인해 베냐민 형들로부터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니다. 그저 요셉을 미워하고 마는 그 정도가 아닌 그를 죽이고자 하는 엄청난 원한의 감정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너무나 잦은 이사로 정사직, 삼리직 안정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열악한 상황기운에서도 요셉은 꿈을 꾸었다는 사실입니다. 꿈을 꾸기에 너무 열악한 환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꿈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렸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과에게는 구원과 기쁨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꿈을 꾸기에 너무도 열악한 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떤 고난도 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꿈으로 밭미암아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버려졌으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여
기서 거기하지 않았습니까. 늘 최선을 다해 일을 했으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옥에서 만난 왕의 술 관원이 요셉의 도해를 받고, 옥에서 나처럼 꼭 요셉을 생각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잊혀진 채 무려 만 2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사면기자의 기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나 그의 발은 차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음 허욕의 밭이요 응할 때까지라 그의
밭침이 그를 곤란하였도다”(사. 105:17-19)

여기 “그의 몸”에 보시면, 각주가 하나 달렸는데, 히브리어로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몸과 영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 요셉이 겪어야 했던 고난은 잔인할 정도로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을 묵묵히 인내했습니다. 그 모진 시간들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꿈은 지을 수도 없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이며, 그 꿈은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어떤 꿈꾸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능력과 승리를 마음껏 누리는 모든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